다문화 여성 절반 "차별 경험"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설문 조사

자녀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여성의 절반 가량은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자녀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다문화 가정 모자의 인권 및 적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주 여성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139명)의 47%(65명)가 차별이나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17%(11명)로 가장 많았고 ▲버스·택시 운전사(11%·7명) ▲선생님(11%·7명) ▲이웃주민(11%·7명) ▲상점주인(6%·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된 차별 대상으로 꼽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직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6%(4명)에 달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상

또 이들 이주여성은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 대해 ▲'미숙한 한국어'(38%) ▲친구사귐(19%) ▲소비수준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17%) ▲따돌림, 놀림, 구타(3%) 등을 꼽았다.

이같은 상황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146명) 가운데 38%(55명)가 '지역사회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미숙한 한국어'를 꼽았다.

또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28%는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친구'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 3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당해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욕설, 협박, 모욕, 돈빼앗김, 따돌림, 신체적 폭행,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31%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이 34%로 가장 많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하철 '저탄소 환경테마관' 개관

'저탄소 환경테마관 개관식'이 8일 오전 광주도시철도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에서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단법인 메트로엔젤과 함께 광주시, 푸른광주21협의회의 지원으로 조성한 이번 저탄소 환경테마관은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지하철 이용과 탄소 저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3가지 테마로 꾸며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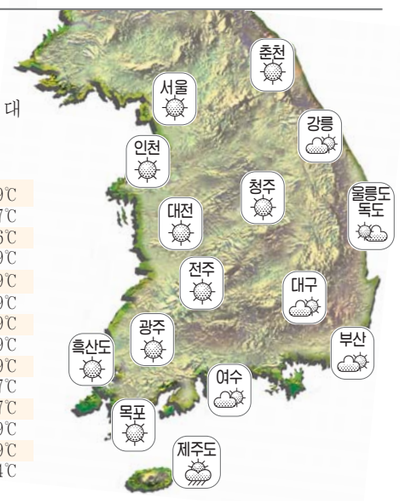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1분 해짐 18시 48분 달뜸 20시 57분 달짐 10시 32분

하늘 한번 보세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조금	19/29℃
목 포	구름조금	19/27℃
여 수	흐린뒤 맑음	21/26℃
완 도	흐린뒤 맑음	18/29℃
구 례	구름조금	19/29℃
해 남	흐린뒤 맑음	18/29℃
장 흥	흐린뒤 맑음	18/29℃
고 흥	흐린뒤 맑음	19/29℃
순 천	구름조금	18/29℃
영 광	구름조금	18/27℃
진 도	흐린뒤 맑음	21/27℃
전 주	구름조금	18/29℃
남 원	구름조금	16/29℃
흑산도	구름조금	20/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43 17:17	09:50 22:16
여수	11:39 23:31	05:08 17: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 씨						
최저/최고	16/28	17/26	17/26	18/27	19/27	19/27

전남경찰 '광주 전출' 신청 봇물

무안 청사 개청 앞두고 … 정원 10%인 500여명이나

오는 2011년 말 전남지방경찰청 개청을 앞두고 전남 경찰관들의 광주 전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할 경우 당장 출퇴근 문제는 물론,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 여건 등 생활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남경찰청과 21개 산하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 가운데 광주경찰청 전출을 신청한 사람은 5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남청 정원(4천900여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남 경찰 10명 중 1명은 '광주 입성'을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남 경찰관들이 광주청 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전남청 이전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 등 생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남 경찰의 광주 전입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광주청과의 인사교류가 1대1 교환방식으로 고착된 데다 가뜩이나 희망자마저 폭증해 광주청 전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전남청에서 광주청으로 옮겨간 경찰은 총 5명으로, 전체 전입 희망자를 감안하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나마 전출된 경찰관들은 대부분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의 가장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전남청에서 광주로 가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푸념 섞인 하소연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엔 화순이나 장성 등 광주 인근 군지역은 물론, 함평이나 곡성 등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지역은 광주에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자녀 가족이나 부모 부양 가족 등이 아닌 경찰관들 사이에서 차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업무 평가 '최하위권'

16개 시·도 중 14위

전남도교육청은 9위

광주시교육청이 2009년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평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중 14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1천점 만점에 649.86점을 받아 7개 광역시 중 6위를, 16개 시·도 중에선 14위에 그쳤다.

716.53점을 받은 전남도교육청은 9개 도(道)지역 교육청 중 5위,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선 9위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766.40점을 받아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지난 1996년 시작됐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순위와 성적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내실화, 교원역량 강화 등 12개 영역으로 나눠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가 5년 연속 수능 1등을 차지하는 등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종합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열악한 교육 재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류와 실적위주로 평가되는 현 시스템에선 부산처럼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상위권에 오르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퇴임

오세욱(사진·55·사법시험 18회) 광주지법원장이 8일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2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오 법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사랑의 잔'이 넘쳐 이젠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며 "허물 많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법조인으로서 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출신인 오 지법원장은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시에 합격한 뒤 지난 1981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고·지법 판사, 순천지원장, 광주고·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 '향토 법관'으로 활동했다.

오 법원장은 민사·형사·특별·파산 등 여러 분야를 거친 경력과 엄격하고 신속한 법집행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으며,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